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공공디자인이즘

버려진 것에 가치를, 디자인에 철학을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공존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환경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철학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디자인이즘'이 그 주인공.

이곳은 단순한 공간 미화가 아닌,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페플라스틱, 현수막, 소방복 등을 업사이클링한 공공 굿즈 제작, 주민참여형 마을 프로젝트, 환경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NGO·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며,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넘어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공디자인이즘의 하진옥 대표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디자인이즘'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시민 참여형 디자인 캠페인에서 출발했지만, 캠페인 후 버려지는 디자인 결과물이 또 다른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 과정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NGO, NPO,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의 폭도 넓어졌고, 자체 프로젝트 기획이나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 환경보존과 주민과의 공존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건강한 생태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행사 조형물과 현수막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 순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한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과 일감을 나누며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공공디자인이즘 전경.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끊임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마을공공디자인부터 폐자원 업사이클링까지... 종합적 사회공헌 전략

최근에는 페플라스틱, 현수막, 원단, 소방복 등을 업사이클링해 생활용품이나 굿즈를 제작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과는 공동체적 회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며, 이를 위해 관계 중심, 생태 중심의 디자인을 비즈니스 전반에 녹여내고자 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이즘'이라는 철학 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와 영상 등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소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외부로부터 꾸준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 성과는 단지 내부 구성원만의 결과 아니라, 함께 협업한 기관과 시민들과의 공동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느낀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상호 발전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작은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일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왜 이 활동을 시

작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지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 모두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갖추려 하다 보니 초기에는 부담도 컸다.

그러나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변화에 직접 참여하며 얻는 만족감이 공감대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자발적인 참여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비전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하나의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실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2022년 가을, 개방형 공간 현상의 공간이즘을 조성하며, 환경 실험과 자원 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공간은 지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실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은 지역 내 대학생, 취업준비 중인 청년, 마을공동체와 함께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자가 정의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보는 프로토타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마을 내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거나,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워크숍 등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 중에 있다.

또한, 환경적까지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시도하여 버려지는 소재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환경폐기물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체품을 개발하면서 환경적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공디자인이즘 직원 단체사진.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와 충북 시·군협의회 관계자들이 성공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천한방엑스포, 충북 시·군협의회와 업무협약

엑스포 성공 위해 관람·홍보 협력 강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환)는 지난 11일, 충청북도 및 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엑스포 단체 관람 유치 및 홍보 협조, 협의회 회원들의 엑스포 관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 협의회와 회원들이 함께 엑스포에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응모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엑스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제천에서 열리는 엑스포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오는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한방과 천연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 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북도, '일하는 밥퍼' 국가브랜드 대상

김영환 지사, 개인 최고 영예 '명예의 전당' 헌정

충북도는 2일 서울에서 열린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으로 도시브랜드 복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개인 부문 최고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2023년 '뭇나리 김치' 2024년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에 이어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글로벌 브랜드 시상식이다. 매년 국내 소비자와 전문

가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브랜드와 개인을 선정하고 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들이 경로당과 전통시장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고 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충북도의 복지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44개 경로당과 35개 전통시장에서 6만1000여명이 참여했고, 노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김영환 지사는 "일하는 밥퍼는 복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 충북만의 실험이자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故 洪계향 할머니(1934~2024)
평생 청소와 노점으로 모은 전 재산(다세대주택)을 생전 경기 사랑의열매에 '유신기부'로 약정했다. 지난해 5월 별세후, 집을 매각한 7억 1천만원이 기부되면서 경기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티 회원이 되었다.

홍계향 할머니
고맙습니다 잘 나눌게요

2024년 모금금액 22,034 백만원

2024년 지원금액 25,238 백만원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4,037백만원	노인 4,638백만원	장애인 2,020백만원	여성/다문화 970백만원
	위기가정 3,658백만원	지역사회 9,442백만원	해외/북한 473백만원	

사업 분야	기초생계 11,113백만원	교육/자립 1,320백만원	주거/환경 5,614백만원	보건/의료 558백만원
	심리/정서 262백만원	사회적응지원 3,234백만원	소통/3차산업 683백만원	문화/역사 2,454백만원

해당 지원내역은 2024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25,238백만원으로 충북도 내 3,580여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25,729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지원 상담 043-238-9200 ARS 060-700-0008(한통에 2천원)

행안부, 위기가구에 생필품 · 안부 전달

청주 · 옥천 선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 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31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충북의 선

정지역은 청주시 · 옥천군이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가구 찾는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위해 ‘발굴지원 교육’ 제작 ·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약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명(1365 자원봉사포털 통계)이고, 이와 별도로 18만6000명 이상(보건복지부 통계)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자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료에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정의, 위기가구 징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위기가구 지원 · 연계 방법 및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이 알기 쉽게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원봉사자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은 지자체별로 위기가구 발굴 연계지원 관

련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되어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에도 교육자료를 수록할 예정이며, 민간기관과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도 발간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과,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 ·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손실분을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고,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00억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안 의결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가족 서비스 통합 추진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 · 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 · 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각 · 언어장애인, 119 직접 신고 가능

과기정통부-소방청 간 협업,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 · 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체계를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유인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실제 거주지에서조차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증계 기관(☎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 · 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통신증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청각 · 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에 우선 연락하여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119는 청각 · 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임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전

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 · 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각 · 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청각 · 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 · 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하여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신청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매월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월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포 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홍보 포스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확대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구매권 월 1만4000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5월에 걸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가 26곳으로 2곳 확대(기존 24곳)되어 구매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2일 밝혔다.

구매권은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유통점이 상이하므로 이용자들은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민관 협력 강화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 사회복지 강화 힘 모은다

사회서비스원 등 26개 유관기관 올 주요사업 공유
신뢰·협업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은 지난 16일 '2025년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강화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됐으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수동)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북도사

회서비스원을 비롯해 26개의 충북도내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연계 가능한 부분과 사업 홍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각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맞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청북도 유관기관 간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 '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입장권 구매 지원 100만원 기탁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은예) 직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영동군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입장권 구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은예 회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뜻깊은 문화행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직원 모두가 참여해 성금을 준비했다"며 "많은 군민이 국악엑스포를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복지현장에서 늘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일동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영동군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문화행사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금은 엑스포 입장권 구입에 사용해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영동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북하나센터,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개소식

남북하나재단 운영 전환
북한이탈주민 정착 최선



충북하나센터가 지난 22일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개소식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송은하)는 지난 22일 통일부 안전지원과 강태성 서기관, 남북하나재단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강태인 과장, 각 구별 신변보호관, 북한이탈주민 자조 협회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해 하반기 통일부가 하나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결과, 수탁기관이

로 진행됐다.
남북하나재단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재단 위탁 하나센터가 3개소에서 올해 4개소가 추가되어 총 7개소가 되었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하나센터의 경우, 각각 2개의 상담

실을 구비하는 등 업무 중심으로 하나센터를 구성하였다"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충북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독거·고령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재단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강태인 과장은 축사를 통해 "충북하나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북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은하 충북하나센터장은 "도내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 연계·협력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가경 프락 에세이' 출간

19년만 첫 수필집... 회원 16명 글 3편씩 수록
김재범·김선희·박영순씨 열린동해문학 등단



제95회 열린동해문학에 등단한 (왼쪽부터) 김재범, 김선희, 박영순 수필가와 임미옥 지도강사가 가경 프락 에세이 출간기념회에 자리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지난 15일 별관에서 '가경 프락 에세이'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에세이는 '1인 1책 펴내기 프로그램' 회원들의 수필을 엮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은세계도서관에서는 이야기꽃이 핀다.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운지 19년 만에 첫 책 '가경 프락 에세이'가 세상에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가경 프락 에세이' 창간호에는 지도강사 수필을 포함해 프로그램 회원 16명의 글이 3편씩 수록됐다. 에세이에는 회원들의 소탈하고 진솔한 일상 속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에세이 출간에 참여한 김재범·김선희·박영순씨는 게재된 수필로 제95회 열린동해문학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등단했다.
김재범씨는 "재작년 자서전을 내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수필에 도전하게 됐다"며 "같이 등단한 분들이 있어 기쁜 마음도 있고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또 다시 글을 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 보려한다"고 새로운 목표를 다졌다.
함께 등단한 박영순씨는 "경험이 제일 적어 등단은 꿈도 못꿨다"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등단한 3명에게는 오는 5월 15일 열린동해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1인 1책 펴내기 이연희 회원의 축하 연주로 시작해 개회사, 도서 발간 경과보고, 도서 증정, 작품 낭송,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1인 1책 프로그램의 임미옥 지도강사는 "9년간 지도해주신 1대 선생님 박영자 수필가에 이어 9년간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막대한 비용으로 동인지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실 회원분들께서 비용을 나눠 부담해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수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축하사에서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돼 자긍심을 느낀다"며 "개인의 기록이 가정의 기록이 되고, 가정의 기록이 사회의 기록, 나아가 국가의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가경 프락 에세이'는 총 500권이 출판됐으며 세계직지문화협회, 청주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시 각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세계직지문화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1인 1책 펴내기' 사업은 전국 유일하게 청주에서만 진행된다.



충북모금회가 진행한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동참한 단체와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모금회, 영남 산불피해 5억2300만원 모금

기업·대학·단체 등 기부행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억 2300여만원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우진전기에서 1억원을 기부했

으며 청주대가 4000만원, 주식회사 LCC가 3000만원을 기탁했다. 심시일반 마음을 보태는 소액 기부도 이어졌다.
기부 내용을 보면 청주동부의 용소방대연합회·가덕전담의용소방대 350만원,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230만원, 사단법인 해

피담 충북센터 150만원, 흥덕사랑봉사단 100만원 등이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 모금은 지난달 25일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산불 피해민 및 피해지역을 위해 사용된다.

충북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7월 문 연다

3억 투입, 돌봄서비스 제공

충북도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이 센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도내 1131개 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2000여 명의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전

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노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충북도는 운영 위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치매환자 가족 45.8% 돌봄 부담 호소… 경제적 어려움 가장 커

2023년 치매역학조사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년 이후 7년만에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 시행 · 위험요인 분석

2026년 치매 환자 100만명 돌파 예상 2044년 200만명 넘어설 듯

보건복지부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 ·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치매역학조사 결과

① 치매 유병률 소폭 감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점진적 개선 및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었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에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②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증가 추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치매 유병률 10.32%),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치매 고위험군 분석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 여성 0.9%p ↓)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을, 과체중 · 비만을, 당뇨병 · 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첫째 등 5.5%, 읍 · 면 9.4%, 둘째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치매실태조사 결과

① 치매 환자의 취약한 건강 · 기능 상태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 · 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 · 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 · 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 · 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 · 병원 41.3%)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 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 · 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하여 타 가족원(동거, 비동거 포함)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하였다.

③ 치매 관리 비용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만9480원, 시설 · 병원은 3138만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 · 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④ 치매 관련 정책 체감도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하였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하였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치매상담콜센터 지역 17.2%, 시설 · 병원 32.7% 외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10% 내외),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유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 · 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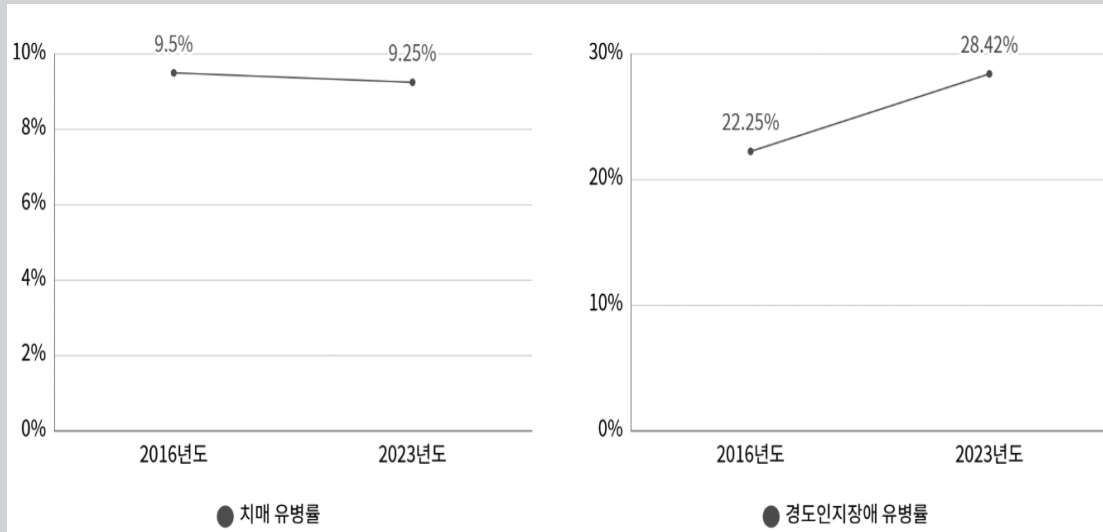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첫째,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 · 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상황(입원, 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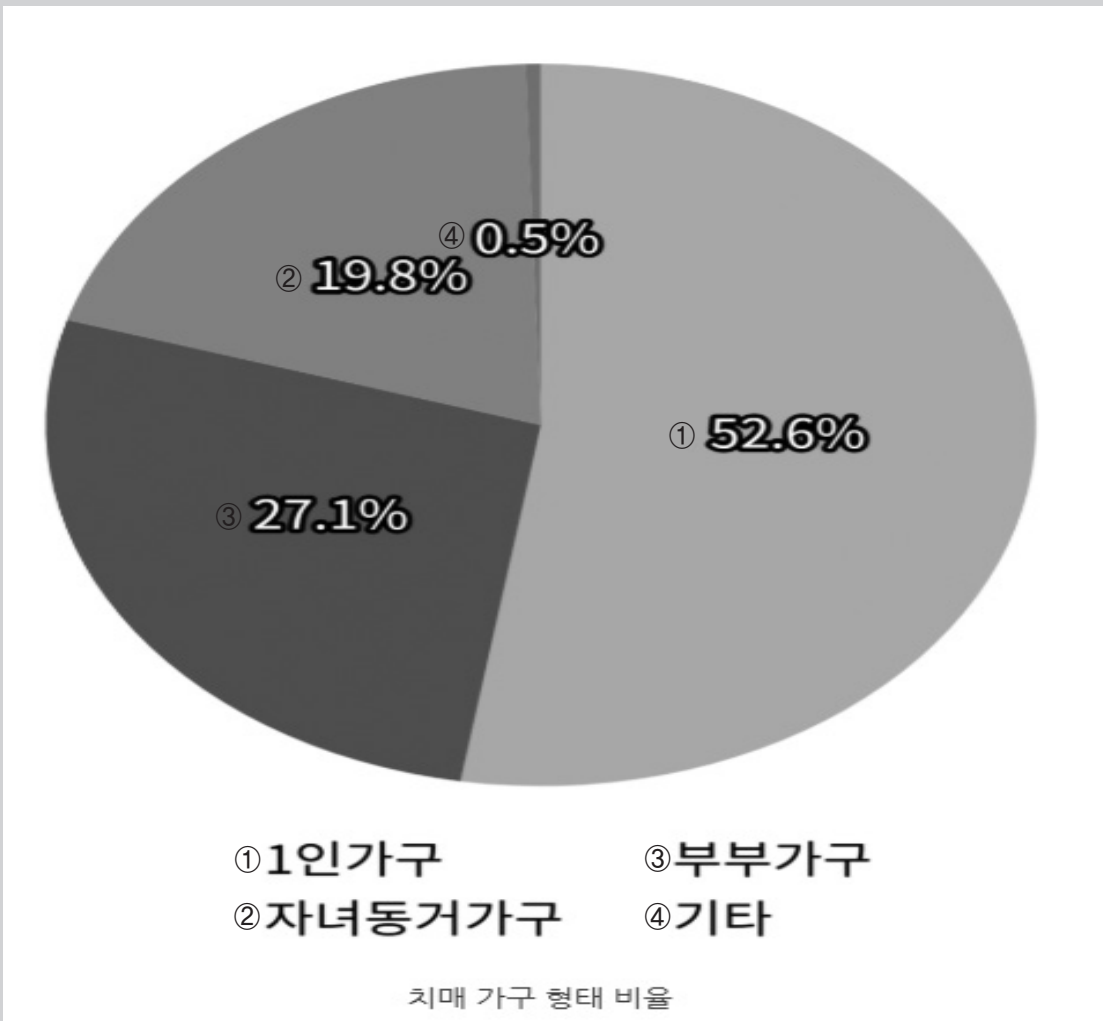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세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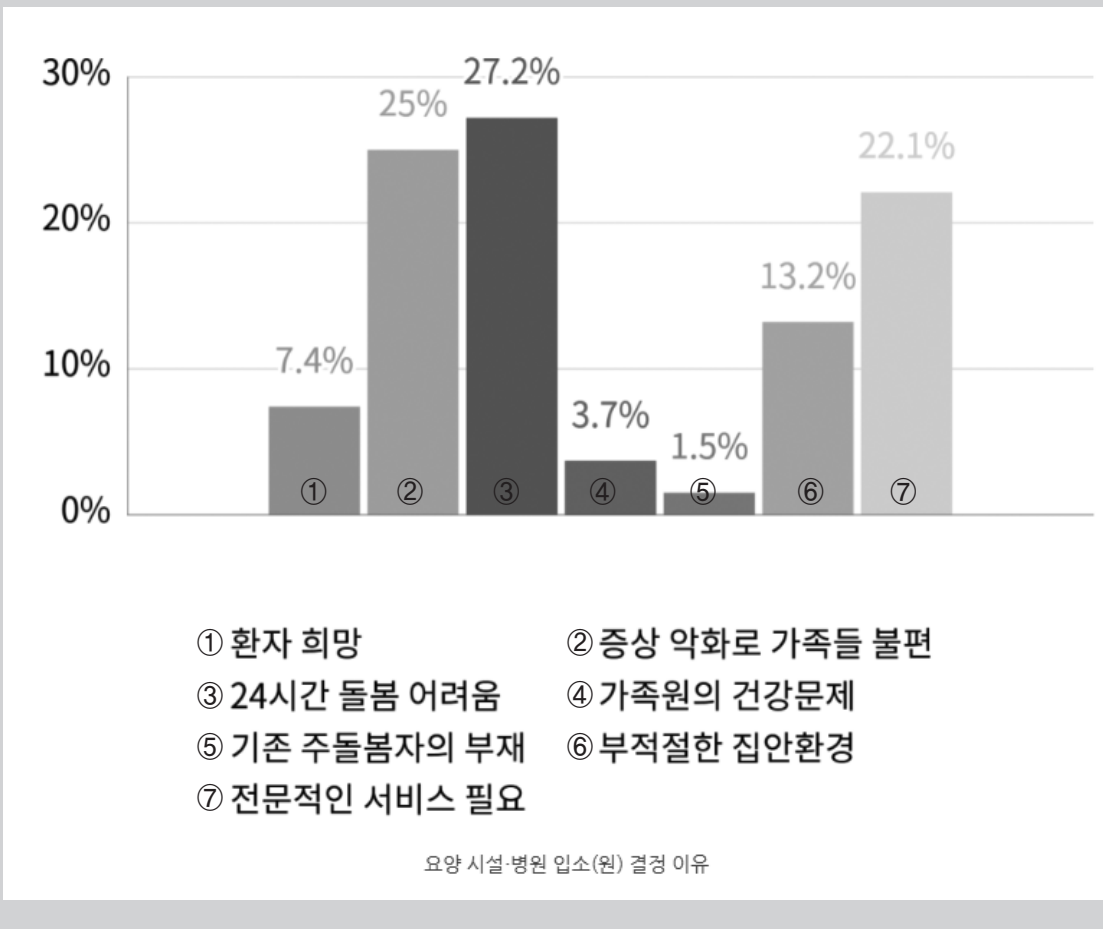
치매역학조사 결과 치매 유병률 감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치매실태조사 결과 여성, 고령, 1인가구 등의 치매 유병률 높은 편



치매실태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부담 느껴"



복지광장



조 수 동

충청북도사회복지사업협회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조수동입니다”

이 인사가 참 좋다. 그래서 명함에는 늘 자랑스럽게 ‘사회복지사라 새겨 넣는다. 의사, 변호사처럼 이름 뒤에 ‘사(士)’가 붙는 직업은 많지만, 사회복지사처럼 앞뒤로 ‘사’가 붙는 직업은 흔치 않다.

평생 이 직업으로 살아오며, 좋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

첫 직장이었던 양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시절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올림픽 무렵, 할머니들을 봉고차에 태워 마을 정자의 어르신들과 즉석 미팅을 열어드린 적이 있다.

그날, 다소곳한 소녀처럼 웃으시던 할

머니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다른 기억도 있다.

‘치매’라는 단어보다 ‘노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던 시절, 부랑인 시설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게 되었다.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용인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말았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주간보호센터를 보면,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새삼 느껴진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도 비록 코로나를 이기지는 못하셨지만, 무려 10년을 그곳에서 지내셨으니 말이다.

또,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특별한 경험도 했다.

제일 높은 나랏님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평가 1위 기관이라는 영예로 국무총리께서 직접 복지관을 방문한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어느 날은 출근하자마자 거래은행 지점장께서 먼저 복지관을 찾아오셨다. 밤사이 26억원이라는 거액이 기관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덕에 한동안 ‘강남의 큰 손’ 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 돈은 인천 지역에 장난감 대여점 9곳을 열고, 각 지자체에 기부하는 데 사용

‘사회복지사’라는 이름

했다. 6개월 동안 매주 2억원씩, 아깝없이 써 본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참 특별하다. 그 시절만큼은 분명히, 인천시의 아주 특별한 고객이었다.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대학 강의를 했고,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시사월간지 데스크로도 활동했다. 십수년 전, 한 번에 백만원을 받는 특강 강사로 나서기도 했으며, 베트남·페루·인도 등에 유치원과 컴퓨터실을 만들고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거침없이 세계를 누볐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결혼 상담(marriage counseling) 전문화’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 최초의 학위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을 계기로 라디오와 TV에 출연하게 되었고, 무려 2년간 매주 두 차례씩 방송상담원으로 고정 출연하기도 했다.

그 무렵은 중국과의 수교도 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고 찾아온 중국의 장애인 단체와 인연이 닿았고, 조선족 부녀회의 대리로 사업(소년소녀가장 돕기)을 도우며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 후원 결연과 지역 복지를 실천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렇게 ‘자정 최초의 결혼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어, 장애인의 결혼 문제 해결에 30년을 바쳤고, 200쌍이 넘는 부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는 내 인생의 자랑이자, 스스로 가슴

에 담아준 훈장이다.

지나친 중국 방문으로 정보기관의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했고, 보조금 없는 복지를 위해 바자회를 열고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했다. 강의를 너무 많아 결국 성대에 무리가 와 ‘장애체함’을 하듯 목소리를 잃은 적도 있었다.

또, 3년간 비워두었던 공간을 어렵게 얻어 칸막이부터 액자, 냉장고, 청소기까지 모두 버려진 물품을 재활용해가며 고생 끝에 멋진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옆집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파초소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식은땀에 휩싸인 채 기절하듯 쓰러지기도 했다.

그렇게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한때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좋은 아빠’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큰 아이 이름이 ‘조은’이기 때문이다. 내겐 참 좋은 이름이다.

장애인을 ‘병신’, ‘불구자’라 부르던 과거는 부끄럽다.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조차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말이 다.

복지칼럼

웃음이 사라진 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김 영 기

충청북도발달장애인인권운동센터장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 속임수가 허용되는 날.

한때는 모두가 ‘속아도 좋고, 속여도 좋은 날’로 여겼던 특별한 날이 점점 조용해져만 간다. 말장난과 농담, 작은 속임수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거의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만우절이 사라지고 있다.

“왜 우리는 웃음을 멈췄는가?”

만우절은 단지 장난의 날이 아니었다. 만우절은 거짓말이 허용되는 유일한 날이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다. 장난은 오전에만 해야 하고, 오후에는 장난임을 알려야 한다. 이렇듯 본질은 단순한 거짓에 있지 않았다. 이날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웃음과 유머를 통해 긴장의 완화, 관계의 완화를 비롯한 권위와 일상의 경직된 틀을 유쾌하게 비트는 장치였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감정을 정화하며, 소속감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유머는 치료적 관계 형성,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지 등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돌봄 현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상담 현장 등에서 유머는 때로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우절은 사회의 ‘감정 환기 시스템’이자 ‘심리적 완충장치’로 작용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관계 기반의 사회적 신뢰가 약해졌다. 장난과 농담에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우리는 혹시나 하는 의심과 ‘상처받지 않을까’하는 걱정 등 ‘누구의 감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 속에 갇혀 감정 교류가 메말라 가고 있다.

둘째, 빠른 디지털 환경이 유머

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렸다. SNS의 발달은 농담과 장난을 빠르게 퍼뜨리는 동시에 오히려 왜곡의 가능성도 키웠다. 누군가의 농담이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유쾌한 의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셋째,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SNS의 발달, 개인 미디어의 성장은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열었다.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이들의 인기를 기반한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 보다 자극적인 것,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별이의 수단이 된 정보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로도의 증가, 보이스피싱이 판치고 딥페이크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세상 속 우리는 농담과 장난의 여유를 누릴 수 없어졌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정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다.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호만이 사회복지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 관계성, 자아존중감, 감정의 회복을 다루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머의 부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머는 치유다. 장난은 친밀하다는 신호였고, 유머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던 사회적 건강성의 지표였다. 웃음이 사라졌다는 건, 그런 정서적 치유와 소통의 창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웃음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어떤 농담은 특정 계층, 성별, 인종, 장애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에 민감해야 한다. 웃음조차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서적 안정망으로서의 신뢰를 기반한 사회여야 한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 유머는 피곤하다. 속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 거짓과 진실이 명확한 사회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머나 장난, 농담은 진실이 충만한 사회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거짓과 진실이 명확한 사회, 나아가 농담이 농담으로 웃음이 되는 사회일 것이다. 각박한 세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도화된 문명의 이기 속 활용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김 응 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고등학교 시절,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나는 늦깎이 신입 사회복지사로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하지만 학업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 경험이 부족했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렵기까지 했다. 주눅거리던 나를 바라보던 어르신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렇게 배움은 입사 후에도 계속되었다.

여러 사업을 맡아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어르신들이었다. 처음엔 영상 편집을 목표로 수업이 구성됐지만, 어플 실행부터 터치 방법까지 낯선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움이 컸다.

수업은 난관에 부딪혔고, 첫 모임이 끝

난 뒤 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여쭙었다.

“나는 전화 받는 거하고 아들, 딸한테 전화 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문자도 보내보고 싶어”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 싶은데 남들은 잘 찍는데 내가 찍으면 항상 이상해.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요즘은 사람이 주문을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뭘지도 모르고 밀통밀통 서있으면 뭇사람들이 눈치를 줄까 무서워서 커피를 마시려고 못 가겠어. 기계로 주문하는 방법 좀 알려줘”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강사님께 전달드렸다.

강사님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수업을 재구성해주셨고, 손떨림이 있는 분들을 위해 터치펜도 도입했다. 카메라 앵글로 셀카를 찍고, 사진을 소개하며 웃음꽃이 피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5개월 동안의 여정을 이어갔다.

또한, 키오스크 모의 주문도 연습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시간은 ‘당사자 중심 사회복지 실천’을 향한 내 첫걸음이기도 했다.

스마트폰 교육이 끝나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팀장님께서 어르신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다.

다가올 복지관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처음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곧바로 어르신들과 모임 일정을 잡고 전시회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의견은 “복지관에 전시할 이쁜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진 촬영 기법은 잘 기억하고 계셨고, 활용할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을 함께 고민하던 중, 청남대 국화축제 나들이를 제안받았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복습도 함께 이뤄졌고, 몇 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을 대신해달라던 어르신들은 스스로 사진을 보내셨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함께, 계속하는 배움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찍은 국화 사진과 어르신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은 행사장 벽면에 전시되었고, “이게 전시할 사진이냐”며 수줍어하던 분들은 이내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셨다. 키오스크 사용은 여전히 어렵고, 배운 것을 다 잊었다며 웃으시지만, 자식들에게 문자로 사진을 보내 자랑하신다며 흐뭇하셨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다 까먹었다며 배

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어르신들은 언제 그러셨냐는 듯 나를 만나면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에게 메시지로 보낸 사진을 자랑하시고는,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쓰게 되었냐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랑을 하신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달라진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내 안의 열정을 되새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지금, 한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나 또한 어르신의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先), 날 생(生), 선생을 한자로 풀이하자면 ‘먼저 살아온 사람’을 뜻한다. 십 수년을 더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단지 스마트폰 하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기 때문일까? 그것만으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내게 아직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이 불러주시는 단지 세 글자 ‘선생님’에 큰 무게감을 느낀다.

‘선생님’이란 말이 아직은 부끄럽지만, 어르신들의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나도 매일 배운다.

오늘도 나는 어르신들 덕분에 성장하는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

“정말 감사합니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